

“부다피아가 불교정보의 세계화 문연다”

세계적인 포털 지향 대폭 개편

1월 5일부터 새로운 서비스 체계... 2월 영문서비스 시작

현대불교 10년 기사 주제어 검색 가능

불교계 정보화를 선도해온 현대 불교는 2005년 1월 5일부터 부다피아(www.buddhapia.com)를 전면 개편, 새 얼굴로 선보인다.

지난 95년 8월, 불교계 최초의 웹사이트로 출범한 부다피아는 10년 만에 영문 및 동영상, 사진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해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현대 불교는 부다피아 개편을 계기로 향후 종합미디어센터(HBMC) 체제로 바뀌 불교의 세계화, 현대화, 생활화를 구현하는 불교계 대표언론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부다피아는 실시간 인터넷 현대불교신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온라인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www.yosiamun.com)과 함께 통합회원제를 운영,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과 깊이있는 정보로 불교정보의 총본산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새로워진 부다피아는 무엇보다도 정확하고도 깊이있는 정보검색 시스템을 갖췄다. 색인을 매긴 10년치 현대불교 기사를 비롯한 각종 텍스트, 동영상, 오디오, 사진, PDF 파일 등 방대한 DB를 기반으로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검색해 찾아준다. 특히 키워드에 부합되는 7만여 장의 사찰, 문화재, 그림, 인물 사진과 선지식들의 동영상 및 오디오 파일을 클릭 한번으로 동시에 제공한다.

이와 함께 부다피아는 불교계의 대표 월간지였던 <대중불교>와 <불일회보>를 비롯 1953년 이전 절간된 불교잡지 등 총 21종 1만 1221개 기사를 디지털로 PDF파일로 만들어서 열람할 수 있는 기능도 마련했다. 또한 70여 종의 회귀 불교교서를 정밀 스캔해 PDF파일로 제공하는

며, 다운로드 및 POD(맞춤형 출판) 서비스를 병행해 '영구보존 프로젝트(Archive Project)'도 추진한다.

부다피아는 수행 및 불교문화 공유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각 분야 전문가 및 아마추어, 사찰 및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불자 커뮤니티(동호회), 블로그(개인 공부 및 취미방), 웹페이지 빌더(사찰 및 단체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공한다. 유명 예술가와 동호인들의 사진, 그림, 조각, 공예 등의 작품을 감상하고 필요시 소장까지 할 수 있는 '사이버 갤러리'도 상설 운영한다. 80권의 전자 불서(e-book)를 비롯 국내 최대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의 3만여종, 8만여 권 불서, 3천여 종 불교문화상품을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시스템은 독자위주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1월 5일부터 선보이는 세계적인 포털 부다피아 초기화면의 일부.

이러한 국내 최대의 DB를 바탕으로 부다피아는 불교정보를 단계적으로 추가해 본격적인 인터넷 해외 포교에 나설 예정이다. 1차로 오는 2월부터 한국 현대 고승 47인의 법문,

조계종 25교구본사 안내, 경전 및 한국 불교미술 소개, 영문 불교사전, 미국 UMI 불교논문 정보 등을 영문으로 서비스 한다. **관련기사 15편**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2005 신년특집 48면 발행

특집 1 '우리도 부처님같이'

도법 스님 특별기고	25면
개인의 삶, 인류역사의 핵	26면
'가족 공동체' 살리기 해법은?	27면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28~29면
불교에서 경영 배운다	30~31면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32~33면
정치, '상생'이라는 화두풀기	34면
부처님 삶을 사는 사람들	
-정토회·서양의 불교수행공동체	37~38면

특집 2

종교는 본래 화합이다-성직자 좌담	6~7면
--------------------	------

특집 3

종합학교생 종교의식 조사	8~10면
---------------	-------

새 아침에 독자와 함께 만난 큰스님-보성 스님	12~13면
닭과 불교 · 을유년 불교사	46면
2005년 불교계 핫이슈	3면
제10회 신행수기 당선작 발표	42~43면

동남아시아 재앙 복구 불교계 나섰다 5면

새해 큰뜻 이루소서! 현대불교 임직원 일동

지진·해일 피해로 통곡하는 동남아시아에 자비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조계종과 함께 동남아 지진 및 해일 피해 돕기를 위한 성금모금을 전개합니다. 접수된 성금은 각국 대사관을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지진·해일 피해 돕기 성금 동참 안내
- 동점문의: 02-2011-1824-5
- 동참계좌: 국민은행 023-25-0011-991 예금주: (재) 불교중앙교원
- 농협 053-01-239894 예금주: (재) 불교중앙교원
- 대한불교조계종·현대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 · 737-8881(대)

“종교화합 실천적 지침 만들자”

본지 기획 성직자 좌담서 지적... '대화의 장' 적극 나서야

'종교화합'이 올 해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지난해에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정장식 포항시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종교편향 발언으로 종교간 불신의 벽이 높아졌다. 전국민의 70%가 종교인인 우리나라에서 종교간 대립은 비단 종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불화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본지가 지난해 12월 23일 마련한 '종교화합을 위한 성직자 좌담회'에서 이동연 목사(인천 한누리교회)는 "일부 종교인들만의 대화만으로는 도저히 종교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

며 "이제 종교간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흥찬진 신부(원주교 주교회의 총무) 역시 "종교인들간에서 대화하고 공동선(共同善)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담에 참가한 성직자들은 이러한 공동선의 실천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에서 종교인들의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에서부터 종교간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만들고 봉사활동이나 인연, 환경, 통일 등의 사회문제에 참여해 나간다면, 자연히 종교간 대화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전부터 인근 교회, 성당과 함께 '난치병 어린이 돕기 공동바자회'를 열고 있는 서울 화계사나 부산지역의 불교와 가톨릭, 원불교 재가 여성 신도 30여 명이 만든 봉사단체 '재가 심소회' 등이 바로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김희성 서강대 명예교수(종교학)는 "종교인들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종교 본래의 목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7면**
김현우·남동우·여수형 기자



그림·조태호

보성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12, 13면에서 만나세요)

謹賀新年



함께하는 종단 신뢰받는 종단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비의 등을 밝히겠습니다

宗 正 道 林 法 傳
원로의장 종 산
총무원장 법 장

중앙총회의장 법 등 호계원장 월 서
교육원장 청 화 포교원장 도 영

大韓佛敎曹溪宗